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 (1월 3주차)

By Jack

답변 늦은 점 죄송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므로 최소 10분 이상 생각하고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쪽지가 하루에 50통 정도 오는 것 같은데, 사실 꽤 놀랍습니다. 학생들이 이토록 공부법에 목말라하고 있었나 하고요. 힘닿는데까지 열심히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공부법은 근거 없이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명의 제자들이 공부하는 것을 지켜보며 같이 연구한 결과로써 추천합니다.

제 목 질문이요!

보낸 사람 gksdud124 (wpqkf3) 533790

받은시간 2015-01-03 00:37:22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답장주셨는데 상담하고싶은게 하나 더 있어서요ㅠㅠ

제가 수능점수가 너무 형편없게 나와서 재수선행반에 다니고 있는데요! 추천해주신 공부 방법대로 하고싶은데 선행반 커리랑 꼬여서요ㅠㅠㅠㅠ 이럴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ㅠ제가 재수시작하는 단계이고 잘해야된다는 마음만 앞서서 별걸다 물어보네요ㅠㅠㅠ매번 답장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대성프리패스를 끊어서 인강을 들어도 대성마이맥 인강을 들어야할것같은데요~

저번에 정승제 쌤 고등수학->개념때려잡기->다호라->한석원모의고사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정승제 쌤 고등수학이랑 개념때려잡기를 해야할 시기에 대신 들을만한 수학 대성마이맥 강좌는 어떤거를 들어야하나요??

수학

이창무 클라이막스 '수능에 꼭 필요한 고등수학(상),(하) -> 한석원 알파테크닉

제 목 상근예비역입니다..

보낸 사람 sss6085 (sss6085) 464730

받은시간 2015-01-03 02:47:26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상근으로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이번에 수능을 준비하려하는데 고3때 41423나왔어요

국어는 정말 썩병이라 다음주부터 마달만 하려하구요

수학은 백분위97까지 찍은 경험있어서 신승범 미통기만 복습하고 수비만 하려고 합니다

영어는 상변쌤꺼 ab0를 제외한 커리 타는중이고 나중에 이명학꺼 그블로 마무리할생각입니다

사탐은 한지랑 사문하고있는데 둘다 지금 개념강의듣고있습니다.

이대로 팬찮을까요?

국어

마달부록 이겨놓고 싸우는 법의 지문읽는 법 꼭 보고 하시고요.

그런데 먼저 권규호 '16가지 문학적 개념과 해석' -> 김동욱 '이것이 비문학이다. -> EBS고전문학 (40강)을 듣고 마달들어가는게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대로 모르면서 마달만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푸는 것이 속도도 빠르고 올바른 공부법입니다.
수학	기출 하나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어차피 21, 29, 30번 킬러문제 싸움인데, 여러 사설 모의고사집을 여러권 사서 푼 후 비전형적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영어	좋습니다.
탐구	한지는 이기상, 사문은 이지영 듣는게 가장 좋습니다.
제 목	안녕하세요 쪽지보내서 죄송해요 ㅠ ㅠ
보낸 사람	nymph0205 (칙킨) 551027
받은시간	2015-01-03 02:54:27
안녕하세요~!!!!글 너무 잘봤어요^^ 글보니까 쪽지가 어마어마한거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이렇게 보내서 죄송해요 ㅠ ㅠ 이번에 수능을 너무 못봐서 재수결정을 했어요... 이왕 결정한거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수학원을 다닐지 독학재수를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계속 고민을 해도 확신이 안들고 결단이 안서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려고 쪽지했습니다 ㅠ ㅠ 또 제가 개념이나 기본이 많이 부족한거 같은데 커리큘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게시글에 쪽지에 답하신 내용 올리신것들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정말 가뜰이나 쪽지 많으신데 쪽지해서 죄송하구요 ㅠ ㅠ 새해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제 목	★★★올해 나이 26살 늦깎이 수험생입니다.
보낸 사람	ranchojacko (긍정적마인드1) 550364
받은시간	2015-01-03 05:54:49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6살이구요 ㅎㅎ 09수능(현역) 10수능(마이맥강남대성) 11수능(독학) 까지 쳤었습니다. 그리고나서 군대를 제대하고, 패션 쪽 학교 입시를 하다가.. 결국 다시 수능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때 교과과정과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ㅎㅎ 오르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언어는 마르고 닳도록, 수학은 한완수 이 2가지가 제일 많이 입에 오르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이 2가지 교재는 샀습니다. 제가 그다지 공부를 잘한 편이 아니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할 지.. 막막해서 이렇게 컴퓨터 키고 쪽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음....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혹시 연락처나 카톡 아이디 알 수 있을까요 ?.. 초면에 너무 당황하실 것 같은데.. 간절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쪽지로만 받겠습니다 ㅠ	
국어	권규호 ‘16가지 문학적 개념과 해석’ -> 김동욱 ‘이것이 비문학이다.’ -> EBS고전문학 -> 마르고 닳도록 과 이겨놓고 싸우는법 구매 -> 이겨놓고 싸우는 법의 지문 읽는 법 완독 -> 마뿔 1,2,3권 전권 1회독 -> 박광일 문법강의 -> 마뿔 2회독 -> 수득,인수,수완 EBS연계교재 1회독 -> 마뿔3회독 -> EBS교재 2회독 -> 마뿔 4회독 -> EBS교재 3회독 -> 국가대표 모의고사를 포함한 모든 사설 모의고사

제 목	안녕하세요^^
보낸 사람	gkdbwls1108 (KU17) 537973
받은시간	2015-01-03 10:51:45
안녕하세요 예비고2 이과 학생입니다! 지금 모의고사는 국영수 112 나와요(원점수 93 100 71) 탐구공부는 화학 이번 방학때 두번정도 보려고 누드 샀구요! 수1 수2 블랙라벨로 이번 방학동안 한번 돌리려하고, 미적1 정석하고 썬으로 한번 공부하고 가려합니다. 아마 이번방학때 미적1만 할것같은데 (이해 못하면 못넘어가는 성격이라ㅜㅜ) 학교 이과 커리큘럼에 따라가지 못할까 좀 걱정도 되네요ㅠ 가장 고민인건 수학입니다ㅜㅜ 중학교때 저희학교가 수학이 100점이 99명 나올정도로 -_-; 시험을 쉽게내서 수학공부를 안했더니 확실히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힘들더라고요 과외로 보충하고 대충 실력은 쌓고있는것 같은데 문제는 시험에서입니다ㅜㅜ 수학시험만 보면 진짜 너무紧张하네요ㅜㅜ 점수에 대한 압박때문인지 실수때문인지... 항상 얼굴 빨개진상태로紧张하면서 문제풀구요... 모의고사 100분 시간이 항상 부족하네요ㅜㅜ 그렇다고 잘푸는것도 아닙니다ㅜㅜ 항상 실수해서 기본적으로 10점씩은 깎이고 들어가니... 참 속상합니다ㅜㅜ 요약하자면, 1.유독 수학시험에서 긴장을 과도하게 함 2.계산실수 및 각종실수(이게 제일 심각합니다ㅜㅜ) 3.방학때 수학 진도를 더나가야할지...? 아, 탐구는 어떻게 좋은가요? 의대 지망하구요, 생물은 제가 좋아하기도하고, 점수도 잘 나오는편이라 하려고하고, 나머지 하나가 문제네요. 화학을 공부하고있긴한데 화학은 찾아보면 실수하기쉽다는말이 많아서 걱정되네요ㅜㅜ 지구과학과 화학중 고민중입니다ㅠ 1. 수학실력이 완전하지 않아서 자신의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것. 재수생, 반수생이 없는 모의고사 등급을 가지고 안심하지 말 것. 원점수 71점이 재수생 반수생이 들어오면 2등급이 아니라 4~5등급이 나올 것으로 사료 됨. 2. 시험의 내용은 공부하지만 시험을 잘치는 법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결과. 혼자서 풀 때도 최대한 빠르게 풀려고 하고 시험처럼 정확하게 풀려고 할 것. 한 문제라도 틀리면 시험성적에 연관된다고 생각하며 최대한 긴장하며 혼자 공부할 것. 3. 수학 진도를 먼저 나가는게 좋습니다.	
제 목	공부법 질문이요
보낸 사람	3f5b658e9cce400a8651 (미움미움) 551066
받은시간	2015-01-03 11:10:45
안녕하세요..... 예비 고3인데 모의고사는 11123나오고요 국어는 따로 개념 안보고 마달 3회독 하려하고요 수학은 신승범 프패 끊어서 수해 들으면서 한완수 풀려하고 있어요. 계산에서 실수가 잦은데 썬하고 블랙라벨 풀어보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기출만 열심히 풀까요?	

영어는... 뭐 봐야될지 잘 모르겠어서 마더텅샀어요. 모의고사 보면 점수는 잘 나오는데 항상 모르는 어휘가 많아요.EBS 말고 단어공부 할까요? 과학은 생물1 백호 지2 오지훈 프패 꿔고 들으면서 기출문제 풀려하려고 해요. 조언좀 해주세요...	
국어	중입니다.
수학	차라리 수해하면서 한완수하고 다호라기출풀고 비전형적인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중입니다. 썬하고 블랙라벨 풀 시간에 모의고사를 푸십시오.
영어	경선식 수능 영단어 (두 가지 원칙으로 외울것. 첫째, 무조건 책의 해마 암기법으로 외울 것. 둘째, 점진적으로 외울 것 - 1일 (1,2강), 2일 (1,2,3,4강), 3일 (1,2,3,4,5,6강), 4일 (1,2,3,4,5,6,7,8강), 5일(1,2,3,4,5,6,7,8,9,10) 이 쯤 되면 5일 차에는 1,2강에는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한번 본 이후에는 색을 달리해서 틀릴 때 마다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날 1,2강 보고 다음 날 1,2강 본 후 3,4강을 볼 때 1,2강에서 물렸던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 다다음날 1,2,3,4,5,6강 볼 때 1,2강의 빨간색 표시된 것을 한 번 더 보되 또 모르겠으면 그 위에 또 파란색으로 색칠, 3,4강은 처음 복습이므로 빨간색으로. 남들 1번 볼 때 5회독의 효과입니다. 위의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수능 전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탐구	중입니다.
제 목 죄송합니다 저도 문의하려합니다 보낸 사람 sangmin34 (만만함) 544969 받은시간 2015-01-03 11:50:11 국어- 국어는 인강듣지 않고 마닿만 하려고 합니다. 마닿 n회독하면 괜찮을까요? 수학- 한석원 강의 들으려고하는데 개념강의 듣기 전에 정석으로 개념 예제 유제 보고 하려는데 괜찮겠죠? 알텍 3회독한다음에 다호라 4회독하고 기출 반복하면 될까요? 영어- 상변쌤 풀커리 괜찮나요 아니면 중간에 판걸로 바꾸는게 좋나요? 상변쌤 좋나요? 과학- 현재 화학1 박상현 풀커리 생각중입니다. 풀커리 괜찮나요? 지1은 스듀 쌤이 없어서 스듀쌤오면 그 쌤 따라가는게 좋나요 아니면 오지훈 쌤 따라가는게 좋나요? 지1은 아무쌤이나 해도 괜찮나요? 이밖에 공부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다릴게요~	
국어	등급이 어느정도인지 몰라서 답변 못해드리겠습니다.
수학	정석은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수학의 바이블로 하는게 낫습니다. 독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어	상변쌤 아주 좋고, 효과를 본 제자들이 많습니다.
탐구	오지훈 따라가는게 중입니다.

제 목	공부법 질문 상담 드립니다!
보낸 사람	nnny20 (nnny20) 497051
받은시간	2015-01-03 16:10:13
안녕하세요 수능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려는 수험생입니다 현재 영어4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5등급 수준이구요 문과생입니다! 올해는 초반에 공부방향을 아예 잡고 제대로 시작하려고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봤는데..고칠것들 말씀해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먼저 -국어- 윤희정 나비효과로 문학부분만,전형태 문법강의 듣고 Ebs수능기출플러스 비문학 문학 사서 풀고 3회독이상하기 화작문은 따로 기출문제집사서 시간재며 연습 Ebs는 하루하루 짹짹이 분량 정해서 풀기 -수학- 정승제 고등수학 완강->바이블 수1,미통기 개념읽고 대표유형정도로 간단히 개념 익히 기 ->심주석 개념인강+ 기출 2,3점 병행->한석원 알텍&n회독->수비+ 다호라 3회독이상 수비는 개정전이 좋을까요?? -영어- 워드마스터+ ebs 로즈리 문법인강+ 천일문 기본->천일문 이센설,완성 n회독->신택스 1.0->리로직 파이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들을지 말지 미정.. Ebs는 나오자마자 순서대로 풀어나갈지..아니면 천일문 완성편을 3월까지 2~3회독 한 후에 4월부터 나갈지는 고민중입니다! -사탐- 사문,생운 예정.. 생운은 이번수능에서 엄청 통수 맞았지만ㅠㅠ다른과목들은 완전히 노베이스라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겁이나네요 두 과목 다 이지영쌤 풀커리 탈 예정입니다! 이상이구요..제 계획들중에서 빼고 더할만한것들과 조언, 그리고 추천해주시는 방향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수고가 정말 많으세요!!!!	
국어	윤희정 나비효과 문학 -> 김동욱 이것이 비문학이다 -> EBS고전문학 -> 마르고 닳 도록 1회독 -> 전형태 형태잡기 문법 -> 마르고 닳도록 + EBS연계 화작문 벌써부터 그렇게 할필요 없습니다. 기출풀고 이비에스만 풀어도 충분하고 그런 건 나중에 수능전에 하는겁니다. 수능기출플러스말고 마닳하세요.
수학	대표유형정도 읽는건 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심도깊게 해야합니다. 차라리 심주석 개념인강이랑 바이블을 병행해야합니다. 그리고 한석원 알텍들을 필요 없습니다. 심주 석 선생님 듣는다면 수비빼고 기출푸는게 나은 점수입니다. 정승제 고등수학 완강 ->

	바이블 + 심주석 (2번) -> 다호라 계속 수비해주세요. 여러개 한다고 좋은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만 여러 번 돌려도 제대로만 한다면 무조건 100점 나옵니다.
영어	EBS는 나중에 실력이 올랐을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도 그때하는 것이 더 빠를 겁니다.
탐구	좋습니다.
제 목	예비고3 문과생 쪽지드립니다
보낸 사람	oseo107 (산블) 551127
받은시간	2015-01-03 17:56:21
안녕하세요 원아이드잭님 쓰신 글들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쪽지드립니다ㅠㅠ 많이 밀려 늦으시더라도 꼭 답장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ㅠ 일단 저는 일반 인문계고 예비고3 문과생이구요 11월 모고 기준 국어 영어 수학 탐구(생윤,사문) 순서대로 5 4 2 2 3 입니다.. 많이 형편없는 거 잘 알구요 이제부터라도 독하게 마음 잡고 공부하고 싶은데 좋다는 건 너무 많은데 저한테 뭐가 좋을지 잘 모르겠고 순서정하기도 어려워요ㅠ 전체적인 커리를 ebs 연계교재까지 포함시켜서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ㅠ 국어는 고1때 감으로 1에서 3까지 나왔는데 그동안 한게 없다보니 결국 5까지 나왔은 상태입니다. 비문학 문학 어떤것도 완성된게 없구요.. 일단 윤혜정쌤의 나비효과를 들으려고 하고 집에 작년에 풀다만 매삼비랑 올해 나온 마당을 샀습니다. 영어는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크게 실력이 늘었다하는 느낌없이 반년정도 뒀습니다ㅠ 방학계획으로 일단 하루 워드마스터 2day씩 으로 잡았구요 듣기도 항상 두세개씩 틀립니다 독해는 말할것도없고 문법도ㅜㅜ 수학은 다른과목에 비해 꾸준히 해왔고 내신 등급도 2고 모의고사 볼때도2라 수능형으로 공부하면 될거같은데.. 고등수학을 인강으로 듣고 수1 미통기 개념원리로 개념다잡은 다음 자이스토리나 기출문제집풀 생각중이구요 학원다니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ebs작년책이랑 2,3점위주로 된 모의고사형 문제집을 풀고있구요 탐구는 그동안 제일 잘맞는게 뭔가해서 모고볼때마다 바꿨었는데요 생윤이 그나마 괜찮고 그동안 배웠던게 한지랑 범정이었는데 내신할때만 잠깐하고 거의 안한거나 마찬가지로 윤사 생윤으로 가려고합니다. 윤사는 최양진 선생님이로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하고싶은말이 너무 많은데 정리가 안되서 보기 불편하실 거 같습니다 죄송해요ㅠㅠ 입시는 수시는 접기로하고.. 정시로 갈 생각이구요 논술을 배워야할거같은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어릴때부터 글은 잘쓴다는 소리를 들어서 논술이 맞을거같긴해요.. 고3시기 동안 책값은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ㅠㅠ 저에게 도움될거같거나 좋은책이라면 추천부탁드려요 제가 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하기 쉬운 유형이라 커리만 짜주신다면 1년내내 그렇게 생활할수있어요 ebs연계교재 포함해서 부탁드릴게요! 길고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수시를 포기하는건 대입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신 안중으면 교과전형 안되고 학생부종합전형 안됩니다. 논술밖에 답이 없는데 제 책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나오면 보라고 말씀드릴수 있는데 2월 초에 오르비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인강을 듣는다면 논단기 김윤희 혹은 권대승을 들으십시오. EBS의 인문논술 개념이어드리기도 괜찮습니다.	
국어	윤혜정 나비효과 ‘문학’ -> 김동욱 ‘이것이 비문학이다.’ -> EBS고전문학 -> 마르고 닳도록 과 이겨놓고 싸우는법 구매 -> 이겨놓고 싸우는 법의 지문 읽는 법 완독 -> 마닿 1,2,3권 전권 1회독 -> 박광일 문법강의 -> 마닿 2회독 -> 수특,인수,수완 EBS연계교재 1회독 -> 마닿3회독 -> EBS교재 2회독 -> 마닿 4회독 -> EBS교재 3회독 -> 국가대표 모의고사를 포함한 모든 사설 모의고사 (매삼비는 빼세요)
영어	경선식 수능 영단어 (두 가지 원칙으로 외울것. 첫째, 무조건 책의 해마 암기법으로 외울 것. 둘째, 점진적으로 외울 것 - 1일 (1,2강), 2일 (1,2,3,4강), 3일 (1,2,3,4,5,6강), 4일 (1,2,3,4,5,6,7,8강), 5일(1,2,3,4,5,6,7,8,9,10) 이 쯤 되면 5일 차에는 1,2강에는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한 번 본 이후에는 색을 달리해서 틀릴 때 마다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날 1,2강 보고 다음 날 1,2강 본 후 3,4강을 볼 때 1,2강에서 몰랐던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 다다음날 1,2,3,4,5,6강 볼 때 1,2강의 빨간색 표시된 것을 한 번 더 보되 또 모르겠으면 그 위에 또 파란색으로 색칠, 3,4강은 처음 복습이므로 빨간색으로. 남들 1번 볼 때 5회독의 효과입니다. 위의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수능 전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탐구	아뇨. 이지영 선생님 따라가세요.
제 목	예비 고3 이과생입니다. 조금 도움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낸 사람	tjrlgnjs (OnlyHwon) 551120
받은시간	2015-01-03 19:07:59
평소에 공부법에 관심이 많아서 올해 7월달에 공부법 강의도 들어보고 다른 공부법에 관련한 칼럼등도 많이 읽어보면서 평소에 적용하려고 노력해보는 편입니다. 책님이 정말 멋지게 답해주시는거 보고 저도 한번 여쭙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2 11월 모의고사 성적은 국어a 86점 92% 수학b 50점 62% 영어 87점 83% 물리1 27점 생1 47점 이렇게 나옵니다. 국어는 객관독해가 중요하니까 항상 글안에서 근거 찾거나, 글 안의 정확한 맥락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시나 문학은 간단한 단어로 정서등을 요약해서 비교하면서 풀니다. 문법은 중학교 때 배운 것도 있지만, 제시문 읽고도 풀리기 때문에 가끔 불안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시(정서)/소설(인물,사건)/작문(주제) 꼼꼼히 안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빈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부는 문법,화법작문 개념어 같은거 하나 듣고 매3 문학/비문학 분석하고 (시는 정서,주제/비문학은 글간구조,주제 등) 기출 꾸준히 풀어볼 생각입니다.	

수학은 보시다싶이 50점이면 4점문제는 거의 못풀다 싶이 하고, 3점문제도 억지로 푸는 정도입니다. 수2 뒷부분부터 주옥 심각합니다.. 앞으로 개념은 약속목적/표현논리 이해, 공식은 유도과정/사용용도 정확히 이해 이렇게 할거구요, 개념 적용하는데 문제를 사용할 생각이구 가리지 않고 많이 풀려고 합니다. 계획은 중3,고1꺼 빠르게 끝내고 수학전과목 교과서 자습서 한번 풀어볼 생각이고, 안녕맨님 하시는거 처럼 직관적이거나 직선적인 성격이라 마음에 들어서 개념이랑 기출 따라가면서 문제는 가리지말고 많이많이 풀 생각입니다. 영어는 빈칸/순서배열처럼 오래걸리는거 빼고 나머지 다풀고 남은시간에 푼다. 문법을 거의 안하고 느낌으로만 해서 해석을위한 문법강의 짧게 듣고 나중에 기출이나 매3으로 해결할 생각이구요, 어휘는 영단어 종결자가 전체단어 문장으로 다 엮어놓은게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구문은 천일문이나 여러 문제집, 기출등의 지문을 보면서 한번에 안읽히는 문장 따로 정리해서 문장노트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출도 돌려볼 생각이예요. 탐구는.. ebs 쌤들 스피드강의 생1,물1 15강짜리 한번 듣고, 물2 강의 하나 잡고 들은 후에, 생1이랑 물2 하이탑 풀고 기출 풀 생각입니다. 확실히 개념이 가장 중요할거 같아요. 기왕 고3된거 누구보다 정확한 방향으로 한만큼 쌓아가며 공부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할거 같아요 수능 만점이 목표입니다!	
너무 정성적으로만 공부하려는 경향이 큼니다. 사실 듣거나 보기에는 좋은 공부법인데, 효율성은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건데요..	
국어	화작은 개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기출 이비에스 모의고사만해도 충분합니다. 문법은 전형테 문법강의 들으시면 되겠네요. 추가로 설파 문학 하나 추가해주세요. 혼자서 풀어야 합니다.
수학	아이고.. 중3 고1꺼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고등수학만 약하게 연계되는데 그걸 언제 다 보시려구요..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과서 풀고 잘하는 건 옛날이야기입니다.. 이창무 클라이막스 수능에 꼭 나오는 고등수학듣고 이의테 개종수 문종수 후에 다 호라 푸세요.
영어	괜찮아보입니다.
탐구	EBS탐구는 별로 추천안합니다. 탐구는 특히 사설인강 들으세요.
제 목	꼭답변부탁드려요.
보낸 사람	e035a424b44d5ed9bd34 (박박) 514508
받은시간	2015-01-03 21:05:11
대구에 자사고다니는 예비고2학생입니다. 모의고사는 항상 국영수이때까지 111 나왔구요 학교내신에서 1학기때는 수1 수2 가 2,3등급나왔고 이번 2학기때미적분1 수2가 3 .4등급으로 더떨어져서 충격먹고 방학때 수학좀 열심히 하려고하는데 제가 항상 수학을 복습을 너무 안해서 비효율적인공부였다고 생각이들더군요. 다름이아니라 겨울방학 수학계획짜는데 제 겨울방학 수학계획이 막막해서 도움을 얻고	

자해서요;;

저희학교는 2학년때 1학기에는 미적분2 2학기에는 확통 그리고 2학년 일년동안 기백 이렇게 2학년때 진도가모두끝이나고 중간기말모두 수학 두과목씩 시험쳐요 아미 1학기때 미적분2 기백이렇게 칠꺼예요

제가 옛날 미분법 수2(저의교육과정으로는 미적분2내용)로 알텍 끝까지보고 어제막 2회독했구요. 방학때 한번 더보려고하고 제가 초월함수 미분파트까지인 알텍 수2 (하)부분 이랑 적분은 다항함수까지는 개념을 꼼꼼히 다졌는데

기백이랑 나머지 적분파트는 개념을 처음 한번 개념원리로 학원에서 한번 풀었는데 복습을 안해서 개념을 까먹어서 기백 (상)은 안듣고 기백(하-공간도형)이랑 적분 개념부분을 알텍 인강으로 잡고 그리고 미적분2 문제집 한권을 이번 2학년 새학기 시작할때까지 하는게 일단 큰목표거든요.

근데 공부법글들을 보니까 제가 수학 복습이 많이 부족해서 성적이 많이 안올랐던것같은데 이번 방학때 그러니까 2학년 시작 할때까지 아직 제교육과정 인강은 나오지않아서 적통에서 적분파트부분 한개랑 기백 공간도형파트 인강 두개들으면서 공부하하고 미적분2문제집 한권풀건데 방학때 계획짜서 개념들 복습 시간분배해가면서 하려니까 하루 공부시간 분배를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해서요.

국어는 매3비한번풀고 수특 국어 문학파트 풀었는데, 벌써 국어 기출을 풀어도될까요 마닳같은거나 국어는 혼자공부해서 개념인강을 안들어봤는데 아니면 개념나비효과를 방학때 들으면서 2학년 모의고사 문제집 사서 개념적용해가면서 풀까요? 그리고 문법은 학교에서 배우는거랑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을 개념 정리하면서 하는데 방학때 문법도 한번 정리해야할까요? 수학을 중점적으로 하려고해서 국어는 하루 2시간 에서 많아야 3시간 공부할것같은데;

자사고라 학교에서 화1을 모두 공부해서 이학년때는 학교내신으로 화2물1을 나가는데 방학때 안해놓으면 학기중에 힘들까봐 목표는 물1만 혼자 수특 인강으로 개념보고 완자로 문제풀면서 이 두권으로 공부하러는데 굳이 메가나 대성같은 쌤인강 들어야 하나요 화1을 ebs로 공부해서 도움 많이됐거든요.

영어는 어휘끝 반틈보고 방학때 2번 정도 다보는게 목표고 그거 다외우면 모의고사풀면서 정리했던 단어장 외우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휘끝을 학기초부터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단어장 한번 완벽하게 다루고 저만의 단어장을 시작하는게 좋겠죠? 학원에서 한주에 어려운거 모아놓은 빈칸유형-순서-배열 한주에 80문제랑 문법 문제집이랑 모의고사 1개씩 내주는데 학원 숙제만 열심히 하려고요

제 계획한번 손봐줄수있을까요? 그리고 미적분2(삼각함수 /초월함수미분/ 적분파트) 유형문제집이 썬만 나와서 그냥 지금3학년들 교육과정 문제집으로 보려고하는데 문제집 어떻게볼까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수학 내신인데 썬(내신기간전에품),일등급수학.

블랙라벨 이렇게 세개문제집으로 내신대비를 해왔는데 자사고라 시험범위도 많고 수학 만해도 두과목씩이라 저거 세개풀기만 바빴고 제대로 복습못한상태로 시험봐서 항상 실수도나고 틀렸던것같아요. 수학도 오답노트가필요한가요?학기중에는 내신과 수학진도 나가는걸 어떻게 분배하셨죠? 선배님은 학기중 수학공부랑 내신은 어떻게 하셨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글이 길었는데 수학에 중점적으로하고 고민이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할자신은잇는데 지금까지의 수학에서의 공부가 비효율적인 공부였던것같아서 이번방학때 제대로 해보려고 이렇게 쪽지드려요. 꼭답변부탁드려요.

국어	혼자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EBS고전문학 -> 셀파 문학 -> 초단기!국어문법 -> 이후에 마르고 닳도록 계속 돌리세요..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기본기 다지세요. 기출은 나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예비 고2면 기본기를 다지세요.
수학	저는 문과였고 아자시간에는 수학 몰빵했습니다. 공부시간중 50%이상은 수학공부했습니다. 오답노트는 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권을 여러 번 푸는 거데 너무 이저저저 손을 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인강이랑 복습커리큘럼도 따로 놓고요. 차라리 수학의 바이블 한권만을 믿고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잘하고 있습니다.
탐구	많이 도움됐을 수도 있지만 수능 때도 그럴까요. 그냥 사설인강 들으세요.

제 목 막막해요ㅠㅠㅠㅠ조언부탁드려요

보낸 사람 53506a4ecbfdd86c2a19 (1월2일) 537455

받은시간 2015-01-03 22:14:39

안녕하세요...ㅎ저는 올해 고삼인 문과학생입니다ㄸㄸ다름이아니라 너무막막해서 쪽지보내요>제가 정신을 이제야차려서...ㄸㄸ 공부열심히해서 대학가려고마음먹었습니다그런데 어디서부터 뭘어떻게 시작해야될지모르겠어요 창피하지만 수학하고 영어가 바닥에요...6~7등급...방학은했고 친구랑도서관가려하는데 뭘해야할지몰라서 갈피를못잡고있습니다 수학은 제가 문과라 수원미통기부분에서만 나오니깐 개념원리같은거 사서 다지고 문제집으로풀고인강들어도될까요? 제가 과외할형편은안되서 인강을들으려하는데 한석원 신승범?이런분들이 좋다고하시더라고요 근데 인강을사서듣는거니깐 이비에스강사들과 차이가있나요?그리고 영어는 수능은 올해발간된 수능완성?특강?거기안에서만나오는건가요? 정말 막막합니다...정말 열심히할거예요 도와주세요 방향만잡으면 딱딱잡고할건데 모르겠어요 도통 해본적이없으니 저렇게만 하면되는건지..ㄸㄸㄸㄸ

국어	EBS고전문학 (40강) -> 윤혜정 나비효과 -> 마르고 닳도록 + EBS연계 (3~4번씩)
수학	수학의 바이블 + 심주석 선생님 개념강의 돌리세요. 고등수학은 수1, 미통기 공부하다 나올때마다 나오는 부분만 공부하고 노트에 기록하면 됩니다. 3번 돌리고 다호라기출 문제 4번 돌리고 한달 정도 남으면 모의고사 한 두세권 풀다가 수능보면 됩니다. 이걸 제대로 했는데 1등급 안나오면 책임지겠습니다.
영어	연계율 30-50%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단어입니다. 위의 경선식 단어 사시고 위 방법처럼 외우세요. 듣기는 학교에서 해주는 거만해도 충분할 겁니다. 따로 시간내서 하지말고 학교에서 해줄 때 제대로 하십시오. 심우철 12시간 문법 + 12시간 독해 (2번씩 듣고) -> Penand.co.kr 문법 책 4권

	-> 마더텅 어법, 어휘편 -> 이명학 ‘리로직 -> 마더텅 기본독해 -> 마더텅 실력독해 -> 이명학 ‘그림에도 불구하고’ -> 각종 모의고사.
탐구	학교개 따라가야합니다. 중간 기말 등이 있으니 학교에서 선정하는 과목으로 공부하십시오.
제 목	정석
보낸 사람	lys94870 (수학귀신지슌) 550342
받은시간	2015-01-04 00:09:09
안녕하세요. 저는 문과에서 이과로 수능을 보려는 재학생입니다. 공익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려고합니다. 님이 올리신 글잘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수학을 정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님이 정석은 좀 올드하다고 그러셨는데요. 정석으로 공부하는거 비추인가요?? 제가 독학을 하고있습니다. 지금은 노베이스라서 그러는데요 개념서로는 수비나 한완수가 좋나요?? 저는 정석으로 공부를 하고 썬을 돌리고 그다음에는 기출을 보려고 하는데요.. 좋은 방법 있나요??	
수학	수학의 바이블로 1번 혼자서 풀고 -> 한석원 생각의 질서 -> 수학의 바이블 1번 더 보기 -> 한석원 알파테크닉 -> 다호라 기출 4회독 -> 한석원 모의고사. 정석 풀고 싶으면 풀어도 됩니다. 저는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수능 적합도가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제 목	국어만질문하겠습니다.
보낸 사람	yjin960606 (표이표이) 490818
받은시간	2015-01-04 01:37:52
재학생입니다. 저는 고1부터 고3 9월전까지 국어를 한번도 빼놓지않고 4등급이였습니다. 여름방학 때 국어만 죽도록했고 이렇게 했는데도 9월에 등급이 오르지 않는다면 끝까지 포기하고 다른과목으로 최저를 맞추자(정시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수시대부분이 최저가 있었기에 국어 4등급으로는 쓸데없다고 생각했기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며 공부했어요. 그런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그렇게 열심히했는데 5등급이나왔습니다. 점수는 올라서 좋아했는데 결국 뜨는 등급은 5등급이 나온거죠. 그때부터 온갖 배신감?같은 감정들이 밀려오면서 국어혐오증에 걸리고 9월부터 손을 댄어요. 그랬더니 수능 때는 자포자기로 시험을 봤는데 6등급..ㅋ이 땀네요. 저는 고등학교3년 동안 웬만한 국어학원을 모두 다녀왔고 저의 수준에 맞는 학원을 결국 찾지 못했어요. 인강은 나비효과 밖에 들어본적이 없구요. 이번에 재수하면서 국어성적 꼭 올리고싶은데 어떤 커리를 짜야할까요. 지금 생각만 하고있는 거는 나비효과 문학만, EBS고전문학40강, 마달3회독, 전형태썸 문법, 박광일썸 마침표, 박광일썸 훈련도감 이렇게 하고있는데 솔직히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의문이고 비문학은 어찌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ㅜㅜ 커리좀 짜주실수 있나요.. 시기별로 해서요!! 항상 수고하십니다ㅜㅜ	
국어	권규호 ‘16가지 문학적 개념과 해석’ -> 김동욱 ‘이것이 비문학이다.’ -> EBS 고전 문학 -> 마르고 닳도록 1, 2, 3권 1회독 -> 박광일 ‘훈련도감’ -> 마달 2회독 -> 박광일 따옴표 (문법강의) -> 마달 3회독 -> EBS연계추가.
제 목	
보낸 사람	jwzzang4728 (albertjw95) 329946
받은시간	2015-01-04 01:54:36

안녕하세요 써주시는 칼럼 다 잘 읽어보고있는 수험생입니다. 정말 좋은 자료들 많이 바쁘신걸알지만 제가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라 꼭 여쭙어보고싶은게 있어서요..ㅠㅠ 수학영역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2015학년도 대수능 3등급 받았습니다.(A형) 그래서 공부방향을 신승범선생님 커리큘럼을 꼭 타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챕터씩 듣기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1월 Pre-수능적해석 2월 수능적해석 수1 상 3월 수능적해석 수1 하 4월 수능적해석 미통기 상 5월 수능적해석 미통기 하 6월 신유형 고난도 완전정복 9월 victory 2016 제가 질문을 드리것은, 1월달 pre-수해를 하면서 수학 실력이 부족하다고 사료되어 수 학문제집 3권 (썬/수능다큐/메가n제)를 병행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ㅠ (기본서는 개념원리로 12월달에 다 끝냈습니다.) 1월달에 저렇게 진행한후 2월 수능적해석강좌부터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도 병행하려 하는데 이 계획이 괜찮은지 평가받고 싶습니다. 많이 바쁘신줄알기에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수험생활이기에 이리도 얹치없이 쪽지를 보내봅니다 ㅠㅠ	
수학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ㅠ 썬 1권만으로 병행하십시오. 항상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 러권 한 번씩 푸는게 아니라 한권 여러번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강 진도가 너무 느린데요.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기출문제는 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인강 다듣고 실력 이 올라온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같이 병행하면 진도도 안나가고 실력이 안올라와서 느립니다. 인강 2~3번 듣고 다호리만 4번 풀고 각종 모의고사 풀고 시험장에 입성하 세요~
제 목	이번에 문과에서 이과로 전향한 4수생입니다
보낸 사람	wls2421 (베이루트) 551349
받은시간	2015-01-04 18:23:28
13 현역 문과 백분위 6월 언 89(2) 수 92(2) 외 99(1) 근사 99(1) 사문 88(3) 경제 71(4) 일본어 80(3) 9월 언 90(2) 수 88(2) 외 90(2) 근사 87(3) 경제 37(5) 사문 86(3) 일본어 82(3) 수능 언 84(3) 수 94(2) 외 94 근사 90 사문 97 일본어 90 13 수능 패인은 우물 안에 갇힌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교 출신이었는데, 학원은 하나도 안 다니고 신승범 인강도 2학년 때 잠깐 듣다가 때려쳤습니다. 특히 인강은 진도 빠기에 급급해 노트 필기만 잔뜩 해놓고 문제도 풀지 않았습니	

고3 때 수학은 정석만 1바퀴 돌리다가 기출은 얼마 보지도 못하고 바로 시험을 쳤습니다. 영어는 6월까지 EBS를 엄청 봤더니 점수가 한 번 잘 나와서 EBS를 거의 안 보고 소홀히 했습니다. 언어는 개념은 공부하지 않고 언어의 기술을 2~3회독 하고 기출을 대충 분석했습니다. 아마 수능 때 저렇게까지 망한 것은 떨기도 했고 시험 상황에 대한 대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문은 그냥 EBS랑 내신 위주로 했고 특별히 따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일본어도 그냥 학교 수업만 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놀다가 다시 학교 와서 자습하고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약간 포기했습니다.

14 현역 문과 백분위

6월 언 99 수 98 외 97 한국사 82 사문 99 아랍어 87

9월 언 100 수 99 외 100 한국사 90 사문 99 아랍어 88

수능 언 93 수 94 외 95 한국사 85 사문 96 아랍어 99

강남청솔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눈 뜨자마자 잠에 들 때까지 오직 공부만 했습니다.

학원에서 제일 독한 여자애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학원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봐서 정말로 신세계였습니다.

국영수는 인강 커리를 따로 타진 않았습니다. 학원 수업 위주로 했습니다.

국어 김민정 문학 인강 조금 듣고, 수학은 아예 안 듣고, 영어는 이명학 리엔로를 들었습니다. 탐구는 처음에 세지를 하다가 중간에 서울대 욕심이 생겨서 한국사로 바꿨습니다. 한국사는 아예 강민성 커리를 타고, 사문은 그냥 학원 수업만 열심히 들었습니다.

아랍어는 이윤석 쌤 현장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모의고사 때마다 국어가 잘 풀려서 모두 100점을 맞았습니다.

파죽지세로 수학과 영어를 풀다보니 늘 모의고사에서 만점에 수렴하는 점수를 맞았었습니다. 하지만 수능날 시험이 끝나자마자 2문제를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멘붕이 와서, 수학과 영어를 대충 봤습니다. 집중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목표는 수능만점이었는데 벌써 2개나 틀려버려서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포기를 한 것입니다. 국어는 한 문제는 헛갈리는데 틀리고, 한 문제는 시간 압박에 지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틀렸습니다. 수학은 30번은 맞았는데 이상하게 주관식 초중반에서 쭉쭉 2문제를 틀렸습니다. 영어도 실수 1개, 몰라서 2개 정도 틀렸습니다. (그때 영어가 문과만 봐서 어려웠습니다. 한국사는 솔직히 공부하면서도 양이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도 벅차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변별 문제가 나와주니 딱 틀려버렸습니다.

사문은 선지에서 둘 중 하나를 고민하다가 틀렸습니다. 이번 아랍어가 무척 어려웠는데 1개만 틀렸습니다. 결론적으로, 14 수능 패인이 만점에 대한 집착인 것을 깨달았기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렵니다.

제 성향은 어느 과목도 우월하게 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밸런스 있는 공부를 잘 하는 편입니다. 또 어려운 변별 문제가 나오면 그날 컨디션에 따라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멘붕이 오면 실수를 곧잘 하는 편입니다. 수능날은 아마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변별 문제도 못 맞춰주고 (국어, 영어, 사문, 국사) 멘붕이 와서 실수도 잔뜩 했습니다. (수학, 영어) 기본적으로 국어나 영어 지문을 빨리 읽는다거나, 수학을 빨리 푼다거나 하는 편은 아닙니다. 대신 컨디션이 좋으면 변별력 문제를 맞출 수 있을 정도의 머리는 있습니다.(고정만점 과목은 없음)머리가 비상한 것은 아니지만 꽤찮은 편이고, 한번 붙이 붙으면 공부도 미친듯이 합니다. 이번에 대학을 1년 다니다가 IT계통에서 종사를 하고 싶어서 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2, 적통, 기백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과탐은 이번에 지1,2로 선택을 했고 역시 하나도 모릅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방향과 커리큘럼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한 분 한 분 쪽지에 답장해주신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로스쿨에 진학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좋은 법조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로스쿨에 진학한지도 3년차가 되네요 π 과연 좋은 법조인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냥 소일거리로 하는 겁니다.	
국어	혼자서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학생이라 판단됩니다. 일단 나중에는 고전문학을 건드리기가 어려우므로 초반에 한 번 정리를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안해두면 괜히 불안한 영역이니까요. EBS고전문학 -> 셸파 문학 (혼자서 다 푸십시오. 문학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박광일 ‘훈련도감’ -> 마르고 닳도록 1회독 -> LEET 언어이해만 사이트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하신 후 다 풀어보세요. 기출은 이제 질릴 것 같고, 답도 대충 다 알겁니다. 리트가 이 때 신선함을 더해줍니다. -> 초단기! 국어문법 (100p도 안되는 문법책입니다. 얇아서 혼자하기 좋습니다. -> 중간중간 마뽕 부록인 이겨놓고 싸우는 법의 고전시가 + 문법 다이제스트 읽으시고요 -> EBS연계 추가 --- 여기까지는 기존의 공부량을 다시 올리는 겁니다. 제가 볼땐 내용보다는 시험을 잘 치는 연습을 하는 것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서울대 경영학과가 유력한 제 제자의 공부방법인데, 모든 사설 모의고사를 산 후에 하루에 1개씩 풀었습니다. 9월이 후. 그리고 시험장소도 바꾸었습니다. 근처의 도서관들을 돌아다니거나 독서실에 가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시간은 줄여서 푸십시오. 65분이 적당합니다.
수학	정승제 ‘수능에 꼭 나오는 고등수학’ (27강) -> 수학의 바이블로 1번 혼자서 풀고 -> 한석원 생각의 질서 -> 수학의 바이블 1번 더 보기 -> 한석원 알파테크닉 -> 다 호라 기출 4회독 -> 한석원 모의고사. 딴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저도 문과인데 수학 자격증을 위해 이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조언 가능합니다.
영어	실력을 다시 살린 후 모의고사로 시험에 대비해야겠네요. 국어와 비슷합니다. Penand.co.kr 문법 책 4권사서 소셜책 읽듯 읽으면 1주일이면 다 읽습니다. -> 경선식 수능 영단어 (두 가지 원칙으로 외울것. 첫째, 무조건 책의 해마 암기법으로 외

	올 것. 둘째, 점진적으로 외울 것 - 1일 (1,2강), 2일 (1,2,3,4강), 3일 (1,2,3,4,5,6강), 4일 (1,2,3,4,5,6,7,8강), 5일(1,2,3,4,5,6,7,8,9,10) 이 쯤 되면 5일 차에는 1,2강에는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한 번 본 이후에는 색을 달리해서 틀릴 때 마다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날 1,2강 보고 다음 날 1,2강 본 후 3,4강을 볼 때 1,2강에서 몰랐던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 다다음날 1,2,3,4,5,6강 볼 때 1,2강의 빨간색 표시된 것을 한 번 더 보되 또 모르겠으면 그 위에 또 파란색으로 색칠, 3,4강은 처음 복습이므로 빨간색으로. 남들 1번 볼 때 5회독의 효과입니다. 위의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수능 전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 최원규 ‘원리문법’ ‘ST’ -> 마더텅 어법,. 어휘 -> 마더텅기본독해 -> 마더텅 심화독해 (마더텅 기출은 수능전까지 계속) -> EBS추가 (N제 빠집니다.) 연계율 낮아질거구요. ---- 국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시험지는 연습의 부족입니다. 28문제인 독해를 35분컷으로 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냥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학생들 훈련시키니 70점대가 100점받기도 했습니다.
탐구	인강 계속 따라가세요. 그리고 9월 이후에는 각 과목 모의고사집 다 사서 계속 푸세요. 공부는 할 줄 아는 것 같으니 결국 1~2문제가 등급 가를 겁니다. 더러운 문제를 계속 풀어봐야 합니다. 비전형적 문제에 적응력을 키우십시오.
제 목	안녕하세요 공부계획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보낸 사람	eldks97 (답티) 529995
받은시간	2015-01-04 19:25:07
이과 예비고3입니다 학교에선 최상위권이고 수시 준비중입니다 수능은 최저만 맞추게 될 확률이 커요 모의고사 기준으로 성적을 대략 말씀드리면 국어의 경우는 항상 1등급이 나왔고 한개 혹은 많이 틀리면 두개 틀렸습니다. 근데 다 맞아본적은 없어요(다풀면 검토도 안하고 얹어져 자는 버릇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ㅠㅠ) 집에서 2015수능 풀어본 결과 2등급 나왔습니다. 수학이 가장 점수가 안나오는데 고2 내내 2등급 상위~3등급 중반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거의 W자 모양으로요. 영어의 경우는 1등급 혹은 2등급입니다만 듣기를 항상 한문제 이상 틀립니다. 문법이나 단어 등 기초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독해와 추론으로 때워서 점수 유지중입니다. 영어선생님께서 참 점수 나오는게 신기하다고도 하셨네요. 수학과 함께 공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과목입니다. 과탐은 물리1은 항상 봤었고 2등급만 나왔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항상 바뀌서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어쨌든 11월모의 국수영물1생1기준 12222 떴습니다 이제 공부계획 질문드릴게요국어는 ebs수능개념을 1월까지 듣고 2월부터는 혼자 계속 연계교재를 따라가면서 기출5개년정도 분석하면서 돌릴 예정입니다. 국어모의고사 공부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이 외에 뭘 해야할지는 모르겠어요. 수학이 가장 고민이 큰데요, ebs수능개념 기백을 듣고 있고요 적통기백에 대한 문제를 이제까지 많이 안풀어봐서 과외 다니면서 RPM두개를 풀고 있습니다. 1월까지 끝나고요. 동시에 학교에서 특	

별수업 비슷한 걸로 수능기출플러스 적통기백을 펴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과외를 끊고 신승범 수능적 발상?과 한석원 알파테크닉 이후 커리를 따라갈 예정입니다. (+ 연계교재) 영어는 마찬가지로 수능개념을 듣고 있고요, 고교영어듣기로 듣기를 꾸준히 할 예정입니 다. 학원에서 1월까지 기출을 하고 2월부터 연계교재를 돌린다고 합니다. 따로 기출분 석을 제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마더텅 말고요.. 친구가 사서 옆에서 봤는데 그 두께부터 정이 안가더군요;;탐구는 물1+ 지1이나 물1+ 지2를 하 게 될 것 같습니다. 물1지1 수능개념 듣는 중이고요. 저희 학교가 올해 안에 2과목을 전 부 다 배우기 때문에 수특 풀면서 내신에 충실하다가 한 여름방학쯤에 과목을 확실히 선택해서 사설인강을 들을 예정입니다.부족한점이나 고쳐야 할 점을 알려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여기저기 말 들어보고 짜집기한거라..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국어	예비고3이면 셸파 문학으로 문학 1권 떼고, EBS고전문학다들으십시오. 기본기 다져 야죠. 이후에 박광일 훈련도감 듣고 -> 마뿔1회독 -> 초단기!국어문법책 -> 마뿔 2 회독 -> EBS연계 -> 9월 이후 모든 사설 모의고사 사서 65분컷으로 풀기
수학	지금까지 재학생에 맞게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됩니다. 과외 끊고나서가 문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강의 두 개 다 못듣습니다. 신승범 수해랑 한석원 알텍이 랑 병행 못합니다. 재학생이니 비교적 짧은 알텍만 2번 들으십시오. 그 뒤에는 다 접 고 다호라 기출만 푸십시오.
영어	최원규 '원리 문법' -> 마더텅 어법,어휘편 (분권되서 이제 괜찮습니다.) -> 최원규 'ST' -> 마더텅 기본 독해 -> 이명학 '리로직' -> 마더텅 실력 독해 -> 학교 따라가면서 EBS추가
제 목	문과 재수생입니다. 답변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보낸 사람	dkswusl (clgy서울대16) 440573 받은시간 2015-01-04 21:24:09
바쁘실텐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요.ㅠㅠ 고전문학 정리를 꼭 해야 하나요?.. 해야한다면 강의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참고로 대성 프리패스 있습니다. ebs고전문학. 박광일 고전문학인가?? 이렇게 추천해 주시던데,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참고로 6월 9월 수능 - 3,2,5 이렇게 받았습니다.	
국어	예 꼭 하십시오. 박광일꺼 들으십시오.
제 목	진짜 절박해요!!!!!!!!!!살려주세요!!!!!!!!!!1
보낸 사람	dufour (뒤푸르) 513293
받은시간	2015-01-04 21:26:35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고3문과생입니다. 저는 고2 내신 평균3~4등급이고요 11월모의평가 점수는 국어 4 수학5 영어4 입니다.	

제가 공부법 책도 읽어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공부법을 정리했는데 저한테 이 공부법이 맞는건지 바쁘실테지만 꼭 답변해주세요 저는 지금부터 죽을각오로 18시간씩 공부해오고있습니다. 반드시 수능때 만점받을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말입니다. 일단 저는 12월 말부터 1월말까지 고등수학정승제 듣고 개때잡정승제 수1을땀다음 2월달에는 미통기인강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너무 인강위주라서..인강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데 이게 괜찮은 걸까요?? 영어도 12월말부터 로즈리이비에스문법+ 영단어 하루150개씩 외우고 2월부터는 이명학쌤 구문독해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국어는 개념나비를 들은후에 문제적용연습같이한다음에 2월달에 비문학독해 인강을 들으려고 하는데 인강위주인데 괜찮을까요? 복습은 꼬박꼬박 하고있습니다. 제가 이방법이 제대로 된건가요?	
어떻게 18시간을 공부하죠... 오래 못합니다. 10시간만 하세요. 7~8시간 주무시고. 사법시험도 실제 공 부시간 8시간 나오면 반드시 합격한다고들 합니다. 앉아 있는 시간 말고 집중력에 신경쓰십시오. 사실 하루에 6시간만 앉아도 정확하게 공부하면 다 1등급 받는게 수능입니다. 절대적 공부량이 필요한 시험 이 아닙니다.	
인강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시기별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9월 10월에 인강만 들을 순 없잖습니까. 지금은 인강에 주력해도 됩니다. 다만 4월 이후에는 혼자서 공부하는 형태로 전환해야합니다.	
국어	이것이 비문학이다. 들으면 되겠네요
수학	괜찮습니다. 다만 그거 끝나고 다호라 기출은 죽이되든 밥이되든 혼자서만 푸세요 4 번.
영어	괜찮습니다.
제 목	공부법관련질문 보내요ㅠ
보낸 사람	gjdmswjd246 (goddess) 551420
받은시간	2015-01-04 22:36:21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란걸 해본적이없는학생입니다 (재수생입니다) 하지만 어떠한계기로 인해서 공부를 시작하게되었는데 솔직히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감도 안잡힙니다 어떻게 공부해야하나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이렇게 공부하려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기는 하나도 잡혀있지 않아요.영어 리스닝만 그냥 다맞고 있습니다 그외에 영어도 문법은하나도 모르고 국어랑 수학은정말 답이없습니다.. 재수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기본기가 없어서 그런지 하나도 이해가 안되드라고요 추천해주시는 책, 강의 있으면 고대로 따르겠습니다.. 정말 기초지식이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해주세요 ㅠ감사합니다ㅠ	

재중반이면 굵고 독학재수학원 다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재학원을 운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학원 특성상 재수종합반은 평균적 학생에게 맞춘 일괄적 강의를 진행하지만 독재학원은 개별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인강에 처음엔 주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권규호 ‘16가지 문학적 개념과 해석’ -> 김동욱 ‘이것이 비문학이다.’ -> 박광일 ‘혼련도감’ -> EBS고전문학 -> 마르고 닳도록 1,2,3권 1회독 -> 박광일 ‘따옴표’ -> 마르고 닳도록 1,2,3권 2회독 -> EBS연계 추가 -> 마르고 닳도록
수학	정승재 ‘수능에 꼭 나오는 고등수학’ (27강) -> 수학의 바이블로 1번 혼자서 풀고 -> 한석원 생각의 질서 -> 수학의 바이블 1번 더 보기 -> 한석원 알파테크닉 -> 다 호라 기출 4회독 -> 한석원 모의고사.
영어	Penand.co.kr에서 문법책 4권 구매 후 소설책처럼 시간 날때마다 읽기 -> 경선식 수능 영단어 (두 가지 원칙으로 외울것. 첫째, 무조건 책의 해마 암기법으로 외울 것. 둘째, 점진적으로 외울 것 - 1일 (1,2강), 2일 (1,2,3,4강), 3일 (1,2,3,4,5,6강), 4일 (1,2,3,4,5,6,7,8강), 5일(1,2,3,4,5,6,7,8,9,10) 이 쯤 되면 5일 차에는 1,2강에는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한 번 본 이후에는 색을 달리해서 틀릴 때 마다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날 1,2강 보고 다음 날 1,2강 본 후 3,4강을 볼 때 1,2강에서 몰랐던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다다음날 1,2,3,4,5,6강 볼 때 1,2강의 빨간색 표시된 것을 한 번 더 보되 또 모르겠으면 그 위에 또 파란색으로 색칠, 3,4강은 처음 복습이므로 빨간색으로. 남들 1번 볼 때 5회독의 효과입니다. 위의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수능 전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 이명학 ‘일리’ -> 이명학 ‘신택스1.0’ -> 마더텅 기본 독해편 -> 이명학 공감어법 -> 마더텅 어법 어휘편 -> 이명학 리로직 -> 마더텅 심화독해편 -> 마더텅 기본, 어휘어법, 심화독해 혼자서 2회독 -> EBS추가하며 마더텅 1번더 -> 각종 모의고사.
제 목	먼저 좀 많이 긴데 뭐지 아아아 일단 고생많이하고 계실텐데 힘내세요!
보낸 사람	edinah0703 (서울대사회과학대학16학번) 495650 받은시간 2015-01-05 00:26:16
예비 고3 문과입니다. 일단 조언을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많은 쪽지 받으셔서 답변해주시기 힘드실텐데ㅠㅠ 염치없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이번 11월 모의고사에서 원점수/백분위로 말씀드리면 국어 : 79점 / 84 수학 : 82점 / 97 영어 : 100점 / 99 한국사 : 47?48?점 / 백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법과 정치 : 45점 / 99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 시간 없으시면 문학부분만 도움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제일 급한데가 거기라ㅠㅠ 수학같은 경우에는	

수1 : 개념 학석원 알파테크닉 - 위밍업 기적 4점 - 기출/크리티컬포인트/실전모의고사 이렇게만 하려고 해요. 고2때도 알파테크닉을 내신기간 때 듣느라 어림잡아 4회독 정도는 한 것 같거든요.

미통기 : 개념 한석원 생각의 질서 - 알파테크닉 - 위밍업 기적 2.3점 - 기적 4점 - 기출/크리티컬포인트/실전모의고사

수학기출문제집 다호라랑 마더텅 중에 추천해주시는게 다호라인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여쭙보고싶어요.

기출문제집 풀을때는 다 주관식으로 풀 예정입니다. (선지 지우고)

국어는.....하 막막하긴 한데 $\pi\pi$ 등급이 1~3으로 진동해요. 1도 2학년 1학기까지만 받았지 지금은 계속 2,3..

이번에 사상 최악의 점수를 받은 건데 이대로 있다간 진짜 5등급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짤 때 국어 위주로 짰어요.

이 참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보자!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 저의 문제점은

화작문 파트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구요. 비문학도 시간을 좀 많이 써요.

비문학에서 틀리는 문제 대다수는 덤벙땀거나/제 사고방식에 끼워맞췄거나. 그거 줄이느라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문학이 제일 문제네요.

고전시가 보면 문제 거의 손도 못댈때도 있고 찍어서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헛갈리는 선지 2개 중에서.

시같은 경우에는 분석이 될 때도 있고 안 될때도 있구요. 소설도 마찬가지로 고전소설도 그렇구요.

이번에도 문학쪽에서 시간 부족함 + 분석 전혀X 라서 짹...틀렸습니다.

계획은

1. 비문학 : 국어는 흐른다(처음에 3회독) - 나쁜국어독해의기술/국어의기술외전 - 국정보 - 국어의기술

애만 수능때까지 계속 하려구요. 국어의 기술 까지 끝내면 3월 모의고사 볼 때쯤 되는데 국어의기술까지 끝나면 국어는 흐른다 처음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계산해보면 2달 정도면 국어는 흐른다 ~ 국어의 기술까지 볼 수 있더라고요.

*****2. 문학 : 문학개념어와 논리적 해석 - 편법의 왕도 문학편

이것만 계속 반복하려구요. 그러다가 약 5회독 쯤 하면 수능국어기출의 기술적 분석 한두번 정도 하고

기술적 분석에서 도움받았던 부분 체크하고 다시 계속해서 위의 두개랑 기술적 분석 몇개 이렇게 반복.

비문학과 문학 기출은

비문학에서 국어는 흐른다 ~ 국어의기술 이 과정이 처음 끝나면 3월 모평쯤 돼요.

문학같은 경우에도 논리적 해석 ~ 편법의 왕도 이 과정을 약 2번정도 하면 3월 모평쯤 되구요.

그래서 3월 모평 쯤부터 화씨지벽(그러니까 1994수능 ~ 2015수능) - 매3비/매3문 - 화씨지벽 - 이렇게 반복...할 계획이었어요.

3. 문법 : 떠먹는 국어문법 - 문법의 끝이건데 떠먹는 국어문법은 한 번만 보고 문법의 끝으로 계속하려고요.

화작문 기출은 떠먹는 국어문법 끝나면 마더텅 기출로 계속해서 보고 화작은 EBS나오면 추가해서 보구요.

*****사실 가장 도움받고 싶은 부분이 문학인데요.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쳐도,

고전문학(시가,소설)이나 현대문학이나 부족하긴 매한가지라....ㅠㅠ

일단 모든 것 시리즈를 살 생각이긴 한데 괜찮나요? 위의 쪽지에서 보니까 작품별 정리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로 해야 좋을지 너무 막막해서ㅠㅠ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영어는 왜인지 모르겠으나 1학년땐 줄곧 2등급만 뜨다가

2년 부터는 백분위가 4월사설 96 - 6월 전국 100 - 8월사설 98 - 11월 전국 99 이렇게 떠서 기분은 좋은데 원인을 모르겠으니 막연하네요.

도움받고싶은 부분은 전반적인 독해? 하는 것이라 어렵습니다.

*****어법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휘 실력이 된다는 가정 하에 문장을 해석하고, 빈칸 추론과 같이 추상적인 글이 나왔을 때

문장의 의미를 평가원의 사고에 맞게 적절히 의?역?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마지막으로 기출 분석이라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게 핵심이에요

어법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법끝으로 독학 조금한 경험 빼고는 전무후무합니다. 초중학교때도 해본 적 없어요.

진짜 읽어보고 말이 되나 안되나 따지고 답 체크합니다ㅠㅠㅠ

그렇다보니 이게 어려워지면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아닌것 같기도 해서ㅠㅠ

지금까지는 어찌다보니 쉬워서 맞았다고 하더라도 수능 땐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빈칸풀때 오히려 지문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다보면 제 생각이 들어가서 틀립니다.

그냥 지문 읽어보고 선지 읽어본 다음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답인것 같다! 하면 그게 답이에요.

1. 전반적인 독해를 할 때 (EBS이든 기출이든 토플이든) :

먼저 읽고 주제를 찾은 다음 (밑줄치거나 종합해서) 문제를 풀고 - 다시 읽으면서 문제 고치기&해석 안되거나 문법 어려운 문장 체크

- 세 번째 훑으면서 단어체크하고 단어 암기

이게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방법이에요. 괜찮은 것 같긴 한데...ㅠㅠ 이대로만 해도 될까요?

교재는 방학때는 AB#1 이랑 색시한 수능기출 1,2권 생각 중입니다. 그러고나서는... 기출해야겠지.. 제대로 정리가 잘 안되서 모르겠네요ㅠ

그리고 EBS나오면 EBS하구요. EGG (상변 쌤) 들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2. 어법

색시한 19일 수능 영문법. 말고는 계획 없습니다ㅠㅠㅠ그러고는 기출? 기출문제집도 마더텅이 좋을지 자이가 좋을지 정하지도 못했네요.

3. 빈칸

음, 이건 대성에서 한석원선생님이랑 이명학선생님이 하시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be the first penguin 이라고 해서, 빈칸 문제를 선지를 다 지우고 (아, 아까 수학에서
선지 지우고 푼다는 것도 이 프로젝트 특징 중 하나예요)

1. 주관식으로 2. 지문에 있는 말을 써서 3. 다시 써라.

이렇게 공부할 계획이에요. 상변쌤 SRSC는 고민 중이고 일단 기출이랑 EBS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제 생각을 넣는 것? 을 어떻게 없앨 지는 고민이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실력 자체를 높이고 싶어서, 수능을 위한 영어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석이론이라는 책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추천해주시거나 / 추천해 주시지 않는
다면 이유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사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수능 이후로 미룰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경우에도 기출과 EBS뿐만 아니라 토플이나 좀 방향은 다르겠으나 SAT 지문이
나 평소 영어 신문같은 것들도 읽을 생각이구요

(이미 읽는 거 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대신 공부는 안했죠..ㅠ)

사탐은

한국사/법정 : EBS 수능개념 - 한국사는 최태성 선생님 수능기출플러스

- 법과정치는 마더텅 수능기출

- EBS 수능특강 - EBS 수능완성

이렇게만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제2외국어같은 경우에는, EBS한문선생님이 저희 학년 부장선생님이셔서
이번에 방학 특강하는 거 듣고, 안정적?인 그냥 EBS 풀 커리 탈 생각이에요.

혹시 다른 제2외국어 추천해주시는 거 있나요? 왜인지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예요...ㅠㅠ 많이 길죠

죄송한 마음도 드네요. 노력 열심히 해서 나중에 꼭 인사드릴게요!!! 화이팅!

진짜 길긴 기네요.. 절박하신 것 같습니다. 짧게 대답했다고 다 안읽은게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만
적었습니다.

국어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문학같은 경우는 EBS고전문학 -> 박광일 '훈련도감 문 학' -> 쉼파 문학 (혼자서 끝내세요)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모든 것 보다는 위의 계획을 추천합니다.
수학	아주 좋습니다. 다호라가 풀이가 더 상세한 편입니다.
영어	Penand.co.kr 문법책 4권 -> 이건 시간날때마다 소설책처럼 본격적으로 심우철 '12시간 문법' (2번)-> 마더텅 어법, 어휘편 -- 빈칸은 이명학 '리로직' 이 제일 좋습니다. 이명학 '리로직' -> 마더텅 기본 및 실력 독해 -> 쌤 쌤 하이퍼빈칸주론^^

	기출분석은 문제 유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현재 답은 몇 번에서 자주 나오며, 답을 주론하는 근거는 어떻게 되며, 최근 문제중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것은 어떤 것이며, 모든 지문을 봐야 풀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순서에서는 최근에 많이 나온 연결사가 무엇이며, 어법에서는 최근에 많이 나온 어법 문제가 도치인지 수인지, 시제인지 등등... 너무 많은데요^^
탐구	베트남어하세요. 나온지 얼마 안되서 쉽습니다. 한문 50점 받을 자신 있으신가요 ^^
제 목	201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보낸 사람	qudhktkf (빠와살분리) 550388 받은시간 2015-01-05 11:57:29
오르비에서 이것 저것 정보를 얻어가다가 원아이드책님의 글을 보고 조언도 많이 얻었지만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쪽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군인 신분입니다. 입대하기 전만 하더라도 대학교 물론 이름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과를 더 중요시여긴다고 주변에서 말을 하고 저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대하고 보니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학교 간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6학년도 수능을 공부해서 재수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일단 부대에서 최소 재수 이상한 후임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서 조언으로 15학년도 수능을 꼭 보라고 해서 휴가기간에 수능을 쳤습니다. 부대마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라서 기초영단어장 1회 정도보고(당연히 턱없이 부족하지만....) 수학같은 경우는 형상기억공식집 수1파트만 진도 나가고 마더텅출판사에 고교기초수학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서 1회독 하고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개판이었습니다. 국어 B 6 수학 5 영어 6 한국사 5 세계사 4 현재의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역하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치르려고 나름 이것 저것을 알아보았는데 독학재수를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학원에서 잡아주고 이런 것이 공부함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고등학생때 과목중 하나가 선생님과 너무 맞지 않아서 결국 그 과목을 포기하게 되어서 저랑 맞는 선생님(혹은 강사)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강의 같은경우도 이것 저것 쉼어서 추천하시는데 그냥 한 선생님(또는 강사) 강의 선택적으로 몇개를 수강하는게 좋은게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또 그리고 요즘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 쟁수능만으로는 입시가 많이 힘들어보입니다. 물론 제가 볼때도 그렇긴 했지만...논술도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보통 다른 여러 사람들이 수능 기출문제집 추천을 부탁드리는데 언어같은 경우는 마르고 닳도록 / 수학같은 경우는 다호라 수능 기출을 추천하시는데 이유가 해설이 좋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어떤면에서 해설이 좋다고하시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수능기출문제집들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한 문제집들이 키출판사(매3비출판사)문제집들과 마더텅 수능 기출문제집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을 읽어 주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 선생님도 괜찮지만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다호라 해설집이 문제집보다 두껍습니다. 충실합니다. 그리고 000표시가 있어 4번 풀기에 적합합니다. 매3비보다는 마르고 닳도록이 좋습니다. 서울대갈거 아니라면 절대 한국사 하지 마십시오. 운사와 생운이 제일 무난합니다.	

국어	인강에 처음엔 주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권규호 '16가지 문학적 개념과 해석' -> 김동욱 '이것이 비문학이다.' -> 박광일 '훈련도감' -> EBS고전문학 -> 마르고 났도록 1,2,3권 1회독 -> 박광일 '따옴표' -> 마르고 났도록 1,2,3권 2회독 -> EBS연계 추가 -> 마르고 났도록
수학	정승제 '수능에 꼭 나오는 고등수학' (27강) -> 수학의 바이블로 1번 혼자서 풀고 -> 한석원 생각의 질서 -> 수학의 바이블 1번 더 보기 -> 한석원 알파테크닉 -> 다 호라 기출 4회독 -> 한석원 모의고사.
영어	Penand.co.kr에서 문법책 4권 구매 후 소설책처럼 시간 날때마다 읽기 -> 경선식 수능 영단어 (두 가지 원칙으로 외울것. 첫째, 무조건 책의 해마 암기법으로 외울 것. 둘째, 점진적으로 외울 것 - 1일 (1,2강), 2일 (1,2,3,4강), 3일 (1,2,3,4,5,6강), 4일 (1,2,3,4,5,6,7,8강), 5일(1,2,3,4,5,6,7,8,9,10) 이 쯤 되면 5일 차에는 1,2강에는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한 번 본 이후에는 색을 달리해서 틀릴 때 마다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날 1,2강 보고 다음 날 1,2강 본 후 3,4강을 볼 때 1,2강에서 몰랐던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다다음날 1,2,3,4,5,6강 볼 때 1,2강의 빨간색 표시된 것을 한 번 더 보되 또 모르겠으면 그 위에 또 파란색으로 색칠, 3,4강은 처음 복습이므로 빨간색으로. 남들 1번 볼 때 5회독의 효과입니다. 위의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수능 전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 이명학 '일리' -> 이명학 '신텍스1.0' -> 마더텅 기본 독해편 -> 이명학 공감어법 -> 마더텅 어법 어휘편 -> 이명학 리로직 -> 마더텅 심화독해편 -> 마더텅 기본, 어휘어법, 심화독해 혼자서 2회독 -> EBS추가하며 마더텅 1번더 -> 각종 모의고사.
탐구	이지영 '윤사' '생윤' 풀커리 110만의 선택!
제 목	공부법 질문
보낸 사람	wjdal1216 (고경연경갑시다) 439399 받은시간
	2015-01-05 13:52:13
95년생이구요 현역때 문과 수능 21212 받구 교대갔구요 교대를 가고자 하는 것보다 성적 맞춰서 가다보니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아서요.. 학교가 적성에 안맞는것은 아닌데 sky를 꼭 가고 싶어서요. 한번 수능을 다시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상황은 어머니께 휴학해서 수능한번 다시보겠다고 말을 못하겠는 상황이에요.. 몰래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교대특성상 학점은 관리 안해도 될 것같아서 무휴학으로 반수하려고 하고있어요.. 현역때부터 수리영역은 계속 1등급 맞아왔고.. 제일 열심히하고 재미있어했던 과목이구요 근데 수능때는 96점맞긴했는데 운이좋았던것같습니다. 2문제정도는 거의 찍다시피 했는데 맞았어요.. 이것도 완벽한 수준은 아니에요 ㅜㅜ국어 영어 는 편차가 너무 컸어요 그날그날에 따라.. 123등급 고루고루 떴는데 주로 2등급이였어요.. 현역때는 마달만 공부했었고 ebs는 학교 진도만 따라갔어요.. 영어는 싫어했던 과목이라 ebs도 제대로 안풀고 수능장 갔구요..(미쳤죠 지금 생각하면) 신텍스리로직만 계속 봤네요... 제가 영어 공부할때 뭔가 남는 기분도 안들었고 아 내가 실력이 늘었구나 라는 부분을 못 받았던것같아요.. 수학같은거는 그런느낌이 확들었었는데..	

뭔가 영어국어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쫓겼었던것같아요. 특히나 영어는 ... 영어쪽이 취약한것같습니다. 뭔가 영어문자를 읽는데 머릿속에 남는것은 별로 없고 그냥 읽고 지문처럼 이해를 하면서 읽지 못했던것같아요.. 단어도 그냥저냥 수준이었던것같고.. 빈칸은 리로직을 들으면서 한다고 했는데 막상수능때는 그냥 원래스타일대로 오로지 감으로 풀었던것같구요. 국어 영어의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아서 점수가 안정적이지가 않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렸어요.. 국영에서 흔들리지않는 실력을 가지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잡아서 기반을 다져야 할지 감이 안오네요.. 사탐은 현역때는 법정 사문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사랑,사회문화 볼까 생각하고있습니다. 현역때 사문45 법정 47로 21이었는데... 사람도 진짜 완벽히 알아서 풀었다기보단 뭔가 감으로 푼게 많았던것같아요... 한국사는 강민성선생님 개념강의 이번겨울에 듣고 복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2외국어도 공부하려고 생각하고있어요 겨울방학때부터 꾸준히 하려고 하고있는데 무슨책을볼지 어떻게 공부해야댈지 감이안잡히네요 1년을 쉬어버려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네요.. 반수하는걸 추천하지만 이대로 째보겠습니다.	
국어	마르고 뚫도록 1회독으로 감잡기 -> EBS고전문학 -> 셸파 문학 -> 박광일 '따옴표' 문법강의 -> 마르고 뚫도록 2회독 ->초단기!국어문법-> LEET언어이해 -> 각종 사설 모의고사만 계속
수학	정승제 '수능에 꼭 나오는 고등수학' (27강) -> 수학의 바이블로 1번 혼자서 풀고 -> 한석원 생각의 질서 -> 수학의 바이블 1번 더 보기 -> 한석원 알파테크닉 -> 다 호라 기출 4회독 -> 한석원 모의고사.
영어	이명학선생님이 언어적 감각을 중시하셔서 그렇게 느끼셨나봅니다. 그렇다면 Penand.co.kr에서 문법책 4권 구매하셔서 읽는건 기본. 심우철 12시간 문법 -> 마더텅 어법, 어휘 -> 12시간 독해 -> 마더텅 기본 및 심화 독해 -> 마더텅 어휘 ~ 심화까지 1번 더 -> 헛님쌤 하이퍼 빈칸주론 -> 그뒤엔 EBS외우면서 기출 한 번 더 -> 각종 사설 모의고사 모두다 풀기
탐구	한국사는 지금부터 바로 하세요 사탐 3배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영수랑 비슷한 공부량을 유지해야할겁니다.
제2	제2외국어는 베트남어로 선택하시고 5월부터 공부하십시오.
제 목	예비고3문과생입니다.
보낸 사람	ysh9727 (레미엘) 477189
받은시간	2015-01-05 23:02:55
안녕하세요. 원아이드 쌤 쪽지가 정말 많아 힘드실텐데 한번만 읽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아이드 쌤 글 보고 여러사람들고 커리를 짜봤는데요 일단 성적은 지방 인문계 자공고로 서울대 1년에 3~4명정도 보냅니다. 그런곳에서 내신 2.후반이고요 1학년때 놀다가 1학년말부터 공부를 해서 내신이 좀 낮습니다. 9월 모의고사는 국어 수학 영어 사문 윤사 94 45 84 39 48 로 1 3 2 2 1 97% 76% 95% 90% 98% 받았구요 11월 모의고사는 학교에 내서 기억나는대로 쓰자면 국어 수학 영어 사문 윤사 88 66 95 47 50	

2	2	2	1	1
95%	90%	94%	96%	99%
정도 받았던것 같습니다.				
질문은 두가지로 나누겠습니다.				
1.일단 서울대에 가고싶어서. 서울대 준비를 위해 한국사를 들을건데요				
강민성 프패를 끊어봤습니다. 강민성 선생님 풀커리를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한 과목이 고민입니다. 일단 저희 학교 내신에서				
법정과 생운을 해야하는데, 저는 운사가 거의 완벽하게 잡혀있어서				
수능을 운사를 보고싶은데, 법정과 생운 내신을 챙기려면 사탐을 4개씩이나 해야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됩니다. 법정이나 생운중 하나를 나머지 수능과목으로 고르고				
남은 시간동안 하는게 나을까요?				
2.각 과목별 공부법을 원아이드 쌤껄 참고하고 써봤는데요				
일단 국어는 제가 취약한 부분이 고전시가, 문법, 문학정도 입니다.				
국기를 이미 1회독 정도 해놓았고 매3문도 1회독 했습니다. 그래서				
윤해정 나비효과 완강 -> EBS 고전시가 40강				
-> 마닿 3~4회독을 하면서 국기 3회독정도 까지만 생각해놓았습니다.				
어떻게 더 할지 고민이에요				
수학은 샵자루 프리패스를 끊어놔서				
샵자루 풀커리를 타면서 수비와 다호라, 내신기간에는 일품정도를 풀 예정이에요.				
영어는 워드마스터를 돌리면서				
오르비의 색시한 영문법과 빈칸을 위해 이슬루션을 쏜 다음에				
마더텅 기출 독해 실력을 사서 분석하려고 합니다.				
사탐 추천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탐을 한국사 말고 다른 한과목은				
독학해도 할 수 있을까요?				
3. 그리고 논술 질문입니다.				
원아이드 쌤 책이 나오면 살 예정인데, 일주일에 한 번정도				
이미 사둔 논술실록 1~3편을 하면서 같이 하면 충분할까요?				
많은 쪽지받으시나라 고생하십니다.. 감사해요!				
1. 예. 생운으로 가십시오. 중간 기말이랑 수능 공부 따로 하는건 비효율적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가면				
변별력있는 문제로 등급이 갈리는데 그 때 힘을 발휘하려면 공부량이 많아야 합니다. 윤리와사상을 잡아				
둔 것이 효과가 있을겁니다. 원래는 윤리로 한 과목이었거든요. 이해가 훨씬 잘될겁니다.				
2. 국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마닿 1회독 끝난후에 전형태 문법강의 들으시고 초단기!국어문법 1권				
끝내세요 아주 짧습니다. 국기는 한번만 더하세요. 나머지 썬잡아보입니다. 다른 한과목은 독학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지영 인강 들으십시오. 스카이에듀				
3. 2월에 나오는 제 책은 논제 이해 - 개요작성 - 요약 - 비교 - 비판 - 논증 - 자료해석 등 논술 기				
본원리를 담아놓은 거인데, 논술실록이랑은 꽤 과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에는 연고대를 출판할				
예정이고요. 위에도 적었지만 항상 여러권을 한 번 보는 것보다 한권을 여러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논				
술실록이나 제 책 중 하나만을 택해서 여러권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인강 추천은 김윤환이				
나 권대승입니다. 사실 가장 안전한건 논단기의 김윤환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	목	예비 고3 이과생입니다		
보낸 사람	tjddms2679 (성으니) 551643			

안녕하세요 이제 수험생인 이과생인데요 지금 11월모의고사 국어2 수학3 영어3 정도 나오고 탐구는 아예 공부 안한상황인데 정시100전형으로 대학가려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높게 잡았구요!!!최대한 하나라도 덜 틀리려고 이번방학에 학원 일주일에 두번가고 계속 독서실에서 독학할거구요 인강도 들을건데 지금 뭐 들을지 고민 중이에요! 영어가 지금 제일 어려운 상황인거 같구 어떻게 공부해야할지도 잘 모르겠구요ㅠㅠ 문법은 기본기는 되있는 상태인데 단어가 너무 취약하고 구문이 완벽하진 않아요 듣기도 꼭 한두개씩 틀리고... 수학은 무조건 문제 많이 풀어보려고 해요 인강 한석원 알텍 들을까 고민중이고 근데 크포가 좀 안좋다는 말이있어서.. 개념서랑 교과서랑 방학때 다 하고 기출문제랑 모의고사 계속 풀 생각이에요! 국어는 화작이랑 비문학 문법은 주로 안틀리는데 꼭 시간이 부족하고 문학부분에서 지문읽다가 끝나요... 이번에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시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방학이 정말 중요할텐데! 그리고 개학하고 나서도 대충 어떤 방향으로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려용ㅠ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일일이 답장해주시다니 진짜 대단하세요!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국어	국어 박광일 선생님 고전문학 -> 훈련도감 문학/비문학 -> 마르고 닳도록 1번 -> 박광일 '따옴표' -> 마닿게속 +EBS ->각종모의고사.
수학	알텍들고 크포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재학생들은 이거 말고 더 할 시간 없습니다. 그 뒤에는 다호리만 계속 풀고 한석원 모의고사등 각종 모의고사 푸세요. 이것만 하십시오. 꼭.
영어	Penand.co.kr에서 문법책 4권 구매하셔서 읽는건 기본. 심우철 12시간 문법 -> 마더텅 어법, 어휘 -> 12시간 독해 -> 마더텅 기본 및 심화 독해 -> 마더텅 어휘 ~ 심화까지 1번 더 -> 쌤 쌤 하이퍼 빈칸주론 -> 그뒤엔 EBS위우면서 기출 한 번 더 -> 각종 사설 모의고사 모두다 풀기
제 목	죄송합니다TT
보낸 사람	e37073f5ea50f6a16e67 (lolla) 477325
받은시간	2015-01-06 17:59:20
고3 일반고 여학생입니다. 쪽지 많으신 거 알지만 올리신 글들 정독하고 나니 안여쭙볼 수가 없네요ㅠㅠ 고3동안 영어말고 학원 안다니고 알려주신 공부법에 충실하게 공부할 생각이에요. 일단 국어는 1학년때 기출만 풀면서 60점에서100점까지 올려놨지만 2학년 때 내신만 공부하다 보니 81점 까지 떨어졌어요. 2등급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보통 3등급 나옵니다. 인강은 윤혜정들을려고 책만 사왔고, 한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고3을 혼자 공부하며 보낼 거라서 자습시간 확보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은 뒤에 세네문제를 항상 못풀어서(객관식 주관식 모두) 2년동안 항상 80점대 초반이였고, 항상 1 등급 나왔어요. 학원을 4년동안 다녔는데 이번 겨울에 끊었어요. 개념인강 한번 돌리고 계속 문제 풀 계획입니다.	

사탐은 한국사 한국지리 할려고 하는데, 지리는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이고, 또 3학년때 배우는 과목이라 선택했구요. 한국사는 서울대 가고 싶어서 노베이스지만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역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학교시험에서는 공부한만큼 점수나오는 정도예요. 한국사 어떻게 공부할지 깜깜해요ㅜㅜ

영어는 계속 100점 나오고 있고, 과외쌤과 감 안떨어지게 공부할 생각이에요.

제가 영어특기자전형도 준비하고 있어서 2월까지의 토플위주로 공부하고 2월부터는 점수나오는대로 수능 공부 시작할 생각이에요. 자소서랑 면접준비를 여름부터 뉘씩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전에 실력 탄탄히 다져놓고 싶습니다. 알려주실 공부방법 정말 충실히 따를 생각이에요

윤혜정 나비효과 -> 박광일 ‘고전, 훈련도감문학/비문학, -> 마똥1회독 -> 박광일 문법 -> 마똥 2회독 -> 계속 마똥이랑 EBS만

수학은 인강 2~3번 들리고 계속 다호라만

지리 - 이기상 필수....필수 ... 무조건 필수

한국사 - 설민석 풀커리

제 목 안녕하세요. 운영하시는 독재학원 관련해서 여쭙고자 쪽지보냅니다.

보낸 사람 vmon1303 (버폴리) 442981

받은시간 2015-01-07 01:01:34

지방에서 독재중인 군필 장수생입니다.(올해 26살 입니다.ㅠㅠ)

운영하시는 독재학원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답변이 가능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오르비 독재학원인가요?)

(오르비 독재학원이 아니고) 독재학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게 가능하다면

1. 독재학원 사이트 주소

(사이트 주소가 혹시나 없다면...)

2.. 위치

3. 한달 수강비

4. 학원 주변에 학사 혹은 원룸 이 있나요? (웬만하면 학사면 좋겠습니다... 혼자살면 아침에 제 때에 일어나는게 힘들더라구요.ㅠㅠ 혹시 학원과 연계하고 있는 학사가 있으면 더 좋구요...)

5. 이번 수능

국B / 백분위 80 / 3등급

수A / 백분위 46 / 5등급

영어 / 백분위 74 / 4등급

생윤 / 백분위 65 / 4등급

윤사/ / 백분위 51 / 5등급

인데 입학이 가능할까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ㄸㄸ 저는 그냥 부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오르비 독학재수학원 추천합니다.	
제 목	저 사탐은...
보낸 사람	b583f0380883ff2eeadb (16재수) 534644
받은시간	2015-01-07 10:09:44
제가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선택했습니다... 사탐은 ebs인강으로 끝내려고 하는데요 하루 최대 몇개까지 듣는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일주일에 2번 각 과목당 2번씩.	
제 목	이런 재수생 논술해도 될까요?
보낸 사람	korkantoi (Socra) 549865
받은시간	2015-01-07 16:07:17
안녕하세요 저는 재수를 결심한 죄수생 입니다. 이번 수능에서 정시란것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지 느껴 재수 때에는 수시 준비도 하려고 하는데요 제 학기부 사항은 자사고 전학년/전교과 6.15등급 결석 112일(15/33/64) 봉사 62시간 으로 사실 상 고교생활을 깔끔하게 망쳤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감점이 큰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저도 논술을 준비해도 될까요? 정말 생각하시는 진심대로 현실적이고 솔직한 말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ㄸㄸ 올해 수능 등급은 언수의탐베어 212(22)1 입니다.	
연세대의 경우 교과는 19점/20점. 비교과는 8.8/10입니다. 준비해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다른 학생과 큰 차이 없네요. 다만 사회계열 말고 인문계열을 준비하십시오.	
성균관대 - 비교내신입니다~ 쓰셔도 됩니다.	
제 목	이과 예비고3
보낸 사람	akfh@naver.com (샤화) 537782
받은시간	2015-01-07 17:45:38
목표대학 서울대학교 화학부 16학번 정시 '가'군 6월모의 32311 9월모의 42413 11월모의 23323 국어는 공부법 완전히 알겠고 (문학 학교강의 흡수하듯 듣고, 모르는단어 사전찾으면서 기본에충실하면서하고, 문법이 조금 약하지만 하면 될 부분이고 마닿도 좋겠지만 저는 매3시리즈 하네요 그걸로..) 수학 지금까지 기출 한번도 안해봐서 성적이 많이 안올랐어요 기본에 충실하려다보니까 너무 답답하게 공부하기도... 내신은 상승세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 ㄸㄸ.. 아쉽네요 수1 수2 기본개념은 끝냈지만 기출풀면서도 개념체크하고 할려고 하고요 기백은 먼저 학교에서 공간좌표까지 시험봤었는데 내신은 ㄸㄸ.. 기백이 제일 낮아요.. 개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게 한이네요 기백은. 적통은 이제 곧하는데 정석은 사기만 했는데 언제다하냐고 생각하고 그냥 취약개념만	

첨삭식으로 볼려고요 딱 그정도용도만 하려고 정석 이용하려고요 지금때 쯤 A형 B형 풀려고요. 기백, 수1 수2는 마더텅 기출 풀면 되는데 지금까지 아깝게 개념, 수능특강정도만 하고 기출문제풀이를 안해서 너무너무 아쉽네요... 제게 응원과 확신좀 ㅠㅜㅠ 영어 과학은 알겠어요 개념은 당연히 계속 봐야되고 화1 수능완성 슬슬 풀려구요 생2는 수능특강 나오면 2점까지만 풀고 학기중에 내신에 주력하려고요 이것들 계획도 세우면서 방학 하루하루 귀중하게 보내려고 하긴해요..	
잘하고 계십니다.	
제 목	논술 학생부 40퍼센트되었던데..
보낸 사람	gl351619 (오플라주) 537421
받은시간	2015-01-07 18:54:56
검정고시는..40퍼센트가 모두 비교내신으로 되는건가요?ㄷㄷ	
예 그렇습니다.	
제 목	공부방법좀추천해주세요
보낸 사람	gjdmswjd246 (goddess) 551420
받은시간	2015-01-07 22:31:48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란걸 해본적이없는학생입니다 (재수생입니다) 하지만 어떠한계기로 인해서 공부를 시작하게되었는데 솔직히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감도 안잡힙니다 어떻게 공부해야하나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이렇게 공부하려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기는 하나도 잡혀있지 않아요.영어 리스닝만 그냥 다맞고 있습니다 그외에 영어도 문법은하나도 모르고 국어랑 수학은정말 답이없습니다.. 재수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기본기가 없어서 그런지 하나도 이해가 안되드라구요 추천해주시는 책, 강의 있으면 고대로 따르겠습니다.. 정말 기초지식이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해주세요 ㅠ감사합니다ㅠㅠ 이라고 보냈었는데 사실 유학생이에요 근데 사정때문에 한국에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한국공부는 해본적이 없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맞나요?지금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문제를 푸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없어서 단어가 힘들고 앞에 고1이랑 연결되서 나오는 (수학)문제는 꼭 막힙니다, 영어는 해석과 리스닝은 됩니다만 문법이안되구요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도 안잡힙니다. 저같은 기초가 없는 학생은 어떻게 공부해야하나요? 제발 충고나 방법좀 알려주세요 문과인데 사탐같은것도 선택하는방법 저같이 어휘력이 부족한학생이 할만한 사탐 좀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국어	인강에 처음엔 주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권규호 ‘16가지 문학적 개념과 해석’ -> 김동욱 ‘이것이 비문학이다.’ -> 박광일 ‘훈련도감’ -> EBS고전문학 -> 마르고 닳도록 1,2,3권 1회독 -> 박광일 ‘따옴표’ -> 마르고 닳도록 1,2,3권 2회독 -> EBS연계 추가 -> 마르고 닳도록
수학	정승제 ‘수능에 꼭 나오는 고등수학’ (27강) -> 수학의 바이블로 1번 혼자서 풀고 -> 한석원 생각의 질서 -> 수학의 바이블 1번 더 보기 -> 한석원 알파테크닉 -> 다 호라 기출 4회독 -> 한석원 모의고사.
영어	Penand.co.kr에서 문법책 4권 구매 후 소설책처럼 시간 날때마다 읽기 -> 경선식 수능 영단어 (두 가지 원칙으로 외울것. 첫째, 무조건 책의 해마 암기법으로 외울 것. 둘째, 점진적으로 외울 것 - 1일 (1,2강), 2일 (1,2,3,4강), 3일 (1,2,3,4,5,6강), 4일 (1,2,3,4,5,6,7,8강), 5일(1,2,3,4,5,6,7,8,9,10) 이 쯤 되면 5일 차에는 1,2강에는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한 번 본 이후에는 색을 달리해서 틀릴 때 마다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날 1,2강 보고 다음 날 1,2강 본 후 3,4강을 볼 때 1,2강에서 몰랐던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다다음날 1,2,3,4,5,6강 볼 때 1,2강의 빨간색 표시된 것을 한 번 더 보되 또 모르 겠으면 그 위에 또 파란색으로 색칠, 3,4강은 처음 복습이므로 빨간색으로. 남들 1번 볼 때 5회독의 효과입니다. 위의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수능 전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 이명학 ‘일리’ -> 이명학 ‘신텍스1.0’ -> 마더텅 기본 독해편 -> 이명학 공감어법 -> 마더텅 어법 어휘편 -> 이명학 리로직 -> 마더텅 심화독해편 -> 마더텅 기본, 어휘어법, 심화독해 혼자서 2회독 -> EBS추가하며 마더텅 1번더 -> 각종 모의고사.
탐구	‘윤사’, ‘생윤’ 이지영입니다.